

GCF,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과 재생에너지 논의

2017.10.19., 송도 - 녹색기후기금(GCF)이 10월 10일부터 이틀간 몰디브 말레에서 열린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고위급 회의에 참석, 에너지 및 환경부 장관 17명을 만났다.

이번 AOSIS의 주제는 재생가능한도서에너지이니셔티브(IRIE) 추진으로, 지난해 마라케시 COP22에서 출범한 바 있다. 이 구상안은 AOSIS의 39개 회원국이 파리협약의 국가결정 공약(NDC)의 일환으로 저배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하비에르 만자나레스 GCF 사무부총장 대리는 이번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AOSIS 회원국이 에너지 자립을 높이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GCF가 군소도서국(SIDS)의 에너지 전환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GCF는 현재 AOSIS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GCF가 AOSIS 회원국과 진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솔로몬 제도 티나강 수력발전 사업, △쿡 제도 태평양 도서국 재생에너지 투자 프로그램, △마우리티우스 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사업 등이 있다.

GCF는 캐리비안 동부를 위한 지속가능에너지사업도 승인한 바 있는데, AOSIS 회원국인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 사업 대상지다.

국제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펀드(Geeref Next) 사업도 바하마, 바베이도스, 코모로,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마우리티우스, 파푸아뉴기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과 같은 군소도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한다.

재생에너지 분야 외에도, GCF는 SIDS의 적응 노력 지원, AOSIS 회원국에서 사모아, 바누아투, 투발루, 피지, 나우루, 몰디브에서 기후적응력 사업 시행, AOSIS의 국제기후재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도 하고 있다.

만자나레스 사무부총장 대행은 "군소도서국은 기후변화 영향의 최전선에 있다. 녹색기후기금은 피지정부와 다음달에 열릴 COP23에서 공동 세션 개최를 통해 가장 취약한 이들 국가에서 GCF 사업 포트폴리오가 빠르게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번역] GCF talks renewable energy with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gcf-talks-renewable-energy-with-alliance-of-small-island-states?inheritRedirect=true&redirect=%2Fwhat-we-do%2Fnewsroom%2Fnews-stories%3Fp_id%3D101_INSTANCE_tLw79zWwerZZ%26p_p_lifecycle%3D0%26p_p_state%3Dnormal%26p_p_mode%3Dview%26p_p_col_id%3Dcolumn-2%26p_p_col_count%3D1%26_101_INSTANCE_tLw79zWwerZZ_delta%3D30%26_101_INSTANCE_tLw79zWwerZZ_keywords%3D%26_101_INSTANCE_tLw79zWwerZZ_advancedSearch%3Dfalse%26_101_INSTANCE_tLw79zWwerZZ_andOperator%3Dtrue%26p_r_p_564233524_resetCur%3Dfalse%26_101_INSTANCE_tLw79zWwerZZ_cur%3D2